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창세기 7 주사 (3:7~11)
(2016년 1월 31일 - 2016년 2월 6일)
(제4권 7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4 권-제 7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1 월 3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리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3:7)

(7 절) 그들 둘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וַתִּפְקַחְנָה עֵינֵי שְׁנֵיהֶם וַיֵּדְעוּ כִּי עֲרֹמָם הָיָה)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을 위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וַיִּתְּפוּרוּ עֲלֵיהֶם תְּאֵנָה וַיַּעֲשׂוּ לָהֶם חֲגֹרֹ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여자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고, 그 곁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경고를 들은 아담이 뱀과 이브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내내 그 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당사자임에도 일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내가 따주는 열매를 묵묵히 받아 먹기까지 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아담은 항상 수동적이었다. 여하튼 그들이 열매를 먹음으로 물은 앞질러졌고 인류 전체의 운명이 바뀌고 만다.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었어야 하니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생한 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죽었어야 할 아담과 이브는 버젓이 살아 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뱀이 이브를 선악과로 유도할 때 말한 그대로 되었다. 겉으로만 보면 뱀의 관정승이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뱀의 말대로 아담과 이브는 눈이 밝아졌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부터 속인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만약, 하나님이 헛된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아야 한다.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당위다. ‘하나님이 아담을 속였다면’이라는 가정조차 신성 모독이다. 따라서 지금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죽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원래는 죽지 않는 육체를 가졌었는데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서서히 진행되어 결국은 죽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구석이 없지 않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서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는 사람이 눈을 뜬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 도망가다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창 21:19).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고치자 아이가 눈을 떴다(왕하 4:35). 하나님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다(왕하 16:17).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눈을 뜨게 해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신약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소경 여러 명을 고쳤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수동태로 번역했다. 아담과 이브가 스스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들의 눈을 밝게 만든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들의 눈을 밝게 했을까?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선악과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 인간의 눈을 연 것도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죽음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밝히셨다. 그렇다면 선과 악에 대해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죽음이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율법의 기준이 인간들 내면 안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율법의 기준은 참으로 요상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게 한다. 사람의 행위를 옳고 그름, 깨끗함과 더러움, 당당함과 부끄러움 등으로 판단하게 만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역할을 몇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롬 3:20, 롬 7:7).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겼다. 하나님이 그를 만들고 매우 좋아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벗은 몸이 수치스러워졌다. 아담 내면에 율법이 생겨나 스스로를 정죄한 것이다. 둘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롬 4:15). 이 말을 아담에게 적용하면 그가 선악과를 먹은 사실이 죄가 아니라 벌거벗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죄다. 누가 언제 ‘벗고 다니는 건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규정했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스스로를 그렇게 보게 했다. 셋째,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런데 율법이 오면 죄는 살아나고 인간이 죽는다(롬 7:9). 죽음의 근거에 죄가 있고 죄를 주관하는 세력은 율법이다. 바울은 율법과 죄와 죽음의 관계를 고린도 전서에서 명쾌하게 정리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전 15:55~56).

결국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죄는 인간을 죽게 한다. 죄의 삶은 사망이다(롬 6:23).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율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 율법은 자연적 상황을 인위적 상황으로, 정상상을 비정상상으로, 좋음을 부끄러움으로 만든다. 그것이 율법의 위력이다. 성경은 죽은 자의 증상을 정죄로 보았다. 그리고 그런 정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사라지게 된다(롬 8:1 참조).

인간은 죽음을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만 이해한다. 하나님은 죽음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멀어짐으로 보신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내면에 생겨난 율법으로 인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깨끗하고 더러움 등을 스스로 판단하게 됐다. 하나님만의 권한이고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권한을 인간들이 행사하는 그 자체가 죄요 죽음이다. 아담은 그의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미 죽었다. 선악 판단 기준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꾼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율법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 보아야 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산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벌거벗음을 안다는 것(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7)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경위야 어찌됐든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자 나타난 첫 현상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렇다면 벌거벗음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게 뭐 그리 중요하길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 앎인가? 구약 학자 케네스 메튜스는 그의 주석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지식의 나무’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연상 시킨다고 말한다. 선과 악에 대한 앎을 주는 나무이니 ‘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말이다.

‘안다’의 히브리 원어는 ‘야다이’ (יָדָע)다. 우리 말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이나 사실을 깨닫는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우리 말에서 앎이란 주로 공부를 통한 지식 취득을 의미한다. 반면 히브리어 ‘야다이’는 체험을 통한 ‘앎을 의미한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앎이란 동침을 의미한다. 또 노아는 물이 어느 정도 줄어 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가 입에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왔다. 노아는 그것을 보고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이 또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다.

아담이 벗었음을 안 것은 단지 지적인 깨달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그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은 상태로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으나 전혀 부끄러하지 않았다 (창 2:25).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갑자기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담이 자신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이것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다. 성경에서 벗었음은 연약함, 없음을 의미한다. 욥의 고백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대변해 준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욥 1:21).

알몸은 연약한 존재,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를 말한다. 욥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하루 아침에 잃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식들도 모두 변을 당해 잃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알몸이란 말은 자신에게 아무 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빈손을 말한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욥과 동일한 고백을 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 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 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전 5:13~15).

전도서는 솔로몬의 자기 고백이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솔로몬만큼 이 세상에서 원없이 살아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그도 인간의 실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지금 손에 가득 쥐고 있다 하여 가진 자도 아니요 권력을 휘두른다고 강한 자도 아니다. 인간의 실존은 결국 별거벗음, 없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같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 6:8).

공수래공수거다. 다들 불교 용어로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썼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은 종교를 초월하여 매한가지인 모양이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처음으로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 거룩한 율법 앞에서 서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된다. 아담의 반응은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둘째, 이는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다. 아담은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띠를 만들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띠를 만든 것은 인위적 장치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자연스러움을 버리고 인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죄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세상은 완벽했다. 그 자체로 선하고 좋은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 자연에 인위를 가했다. ‘띠를 만들었다’에 쓰인 단어는 놀랍게도 ‘아사’(ἄσχη)다. 아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유물이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쓰인 ‘아사’는 늘 창조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그것은 늘 자연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아사’가 인간에게 쓰이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위, 조작이 일어났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 가리려는 시도를 한다.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벗은 몸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인간이 하게 된 결과다. 율법은 인간에게 수치심을 안겨 준다. 인간은 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또 어떤 때는 이상과 현실 속의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준에 못미치면 열등감에 시달린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어서면 금세 교만해진다. 그것이 율법이다.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감정이다. 벗었음을 부정하고 싶은 거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자신에게 인위를 가한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절대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고단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도록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기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이나 남을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수치심이 들거나 열등감이 들 때 당신은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늘 비교하고 비교 당하는 일이 고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르와흐로 나타난 하나님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8~10)

(8 절) 그들은 그날 ‘르와흐’로 동산을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וַיִּשְׁמְעוּ אֶת-קוֹל יְהוָה אֱלֹהִים מְתַלְתֵּל בְּגֵן עֵדֶן לְרִגְלֵי הָאָדָם)

그남자와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동산 중앙의 나무로 숨었습니다.

(וַיִּתְחַבֵּא אָדָם וְאִשְׁתּוֹ מִפְּנֵי יְהוָה אֱלֹהִים בְּתוֹךְ עֵץ הַגֵּן)

(9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וַיִּקְרָא יְהוָה אֱלֹהִים אֶל-אָדָם וַיֹּאמֶר לוֹ)

네가 어디 있느냐? (אַיִכָּה)

(10 절) 그남자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당신의 소리를 제가 동산에서 들었습니다. (אֶת-קוֹלְךָ שָׁמַעְתִּי בְּגֵן)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웠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וַיֹּאמֶר כִּי-עָרֹם אָנֹכִי וַאֲחַבֵּ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띠로는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없었다. 죄를 없애는 것이 어디 ‘인위’로 될 일인가? 창조질서가 붕괴 되면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새창조 뿐이다. 다른 길은 없다. 하지만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경위야 어쨌든 인간은 넘어졌고,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숙제가 하나님께 남겨졌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동산을 찾으셨고 그곳에서 거니셨다. 그날 동산에는 르와흐가 일었다. 우리 성경에 바람으로 번역되어 있다. 바람은 성령과 같은 단어인 ‘르와흐’(רוח)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허둥지둥 무화과 나뭇잎으로 띠를 만들어 입었다. 바로 그 때 ‘르와흐’가 일었다. 르와흐는 창세기 1장 2절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다. 창세기 1장 2절 내용이 무엇인가? 빛이 존재하기 전 우주 만물의 상태를 묘사한 구절이다. 창세기 기자는 그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깊음으로 표현했다. 그때 하나님의 르와흐가 수면 위를 휘몰아쳤다. 그리고 그 르와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다시 등장한다. 번역자들은 1장 2절의 르와흐는 ‘영’으로 3장 8절의 르와흐는 ‘바람’으로 번역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르와흐는 영과 바람으로 구분되는 단어가 아니다. 그냥 르와흐다. 히브리 성경은 르와흐 앞에 ‘르’(ר)라는 글자 하나가 붙어 있다. 일종의 전치사인데 ‘~위하여,’ ‘~를 향하여,’ ‘~에 속하여’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모든 성경이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 등으로 번역해서 이 ‘르’(ר)를 시간의 전치사로 이해했는데 사실 문법적으로 제대로 번역한건지 의문이 든다. 여기서 문법을 문제시한 이유는 단순하다. 만약 이 글자를 시간이 아닌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그날 하나님이 ‘영으로’ 동산을 왔다갔다 하시면서 소리를 내셨고 아담이 그 소리를 들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말이다.

‘르와흐’를 바람으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의 선입관이나 고정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 바람은 별개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르와흐’를 영으로 번역한 경우에는 늘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세 5경에서 ‘르와흐’가 생명, 호흡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바람은 늘 하나님이 만드셨다. 즉, 바람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다. 물

로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은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르와흐를 물 위로 불게 하셨다(창 8:1). 르와흐는 물을 줄어들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 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던 것도 하나님이 불게 하신 ‘르와흐’다(출 14:21). 하나님은 밤새 르와흐가 불게 하였고, 물이 물러가 홍해는 바닥까지 말랐다. 메뚜기를 동원해 강박한 바로왕과 이집트에 재앙을 몰고 온 것도 르와흐고(출 10:19), 그 메뚜기들을 몰아낸 것도 르와흐다(출 10:19). 성경에서 언제나 르와흐를 동원하고 움직이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과학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에게 있어 ‘바람’이라는 단어는 단지 과학적 현상일 뿐 아무런 정서적인 느낌이 없다. 하지만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과학적 상식이 없었다. 그들 눈에는 밤새 모래를 날리게도 하고, 하루 아침에 모래산을 만들기도 하는 그 바람은 분명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바람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그들에게 바람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체이자 심판을 몰고오는 공의의 주체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와흐를 자연의 바람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 현현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등장한 르와흐는 과연 무엇이였을까?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미 신성불가침의 영역을 건드린 상태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인간들 스스로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선악 판단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선악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 시점에 하나님의 개입은 불가피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야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고를 예방하신 일보다는 사후약방문이 훨씬 많다. 그것도 말이 예방이지 기껏해야 경고하는 정도이다. 인간이 그 경고를 무시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늘 그런 방식을 택하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죽일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당시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시다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야 가인에게 나타나셨다. 그 뿐인가?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이집트로 들어가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아내에게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했다. 이집트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이기적이고도 비겁한 결정이었다. 아브람의 이런 음모(?)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마디 경고도 안 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이 벌어질 때도 두고만 보셨다. 그러다가 애꿎은 바로왕만 혼쭐이 났다. 한 술 더 떠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아브라함은 벌을 받기는 커녕 엄청난 부까지 얻게 되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뒷북치기(?)는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조차 없다.

어찌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모습에 독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골탕먹이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수로 놓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되면 매 사건마다 인간들이 임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맞다면 어떤 일에 미리 개입하지 않다가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개입하시는 것은 분명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렇다면 그다음 질문 즉, 우리 생각에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왜 하나님은 묵인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하나님은 르와흐로 나타나셔서 아담의 주변을 거니셨다. 아담은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래서 얼른 나무 뒤로 숨었다.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로 설명하기도 했다(엡 1:4 참조). 이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수습책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하나님이 왜 물이 얼 질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입하시는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인간들이 모두 다 헤아릴 수는 없다. 단지 인간의 짧디 짧은 지식으로 그저 추측해 볼 뿐이다. 그날 르와흐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담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두려워 숨었다.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첫 번째 반응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마냥 기쁘기만 하던가요? 아니면 뒤로 숨고 싶었나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원치 않았거나 또는 피하고 싶은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 계속 불어오는 하나님의 루와흐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피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8~10)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 오셨음을 소리로 알았다. 여기서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 (קוֹל)은 목소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이 내는 모든 소리를 포함한다. 또한 소리 그자체가 아니라 소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까지도 의미한다. 하나님은 스치는 르와흐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모든 과정을 목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메시지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아담과 이브를 향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메시지다. “내가 그렇게 먹지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너희들이 감히 따먹어? 내 말을 뭘로 알고!”라는 역정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시고 그런 인간을 구원해 내기 위해 그들을 찾으시는 사랑의 메시지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 하나님이 르와흐로 등장하는 것은 드디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이후부터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담과 이브가 나무 사이로 숨은 것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도, 그들의 운명에 관해 말씀하신 한 것도 모두가 구속을 위한 그분의 섬세한 손길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 그냥 들린 것이 아니라 여러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그들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숨었다. 알레고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나무’라고 하면 무조건 십자가를 떠올린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 뒤로 숨었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는 좀 무리한 해석인 듯하다. 이미 십자가 뒤로 숨은 그들을 하나님이 굳이 다시 불러낸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속의 관점에서 지금 이런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하는가? “그러게, 죄를 짓지 말지 왜 하지말라는 짓은 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말에 동의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는 하나님의 구속과는 아직 거리가 먼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죄인의 운명적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그들처럼 선악과를 따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한 채 숨을 수 밖에 없다. 누가 당당하게 자신만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죄인들은 당연히 무화과 나뭇잎이라도 엮어서 자신의 치부를 가려보려고 애쓴다. 그래도 안되면 숨을 곳을 찾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서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은 도긴개긴이다. 누가 그 거룩함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간다. 문제는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피해 다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다. 사도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 있었을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요 1:9-11).

빛이 이 땅에 계시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빛을 싫어하여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든다. 예수님은 이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19-20).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은 죄인의 본성이다. 빛을 피하는 사람은 빛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무엇이 빛의 혜택인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고 십자가의 은혜다. 율매임에서 풀려나는 자유고 애씀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쉽이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왜 빛을 피하려 할까?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는가? 빛이 좋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 지금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가정해보라. 숨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 처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서 있을 담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실상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집의 불구경 하듯 한다. 자신이 바로 그런 죄인인데도 말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도 없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실재가 아니라 추상일 뿐이다. 내가 뭐 그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그래도 신문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아냐? 난 한번도 감옥 갈만한 죄는 안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숨을 필요가 없다며 손사레를 칠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죄로 인해 절대적 존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죄의 경중을 비교하는 형국으로 전략시켜 버렸다. 마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어느 바리새인처럼 말이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다. 바리새인은 그 사실이 무척이나 기뻐던 모양이다. 비교할 대상이 생겼으니 말이다. 자신이 그 세리와 같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는 기도하는 내내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감사해 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반면 세리는 바리새인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왜?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으니까!

아담이 왜 숨었는가?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임을 선악과를 먹고 깨닫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말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3:8~10)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아담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이는 그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려는 의도로 하신 질문이다.

“그래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뭘 알게 되었니? 너의 벌거벗은 수치 아니니?”

바로 이것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뜻이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구속의 시작이다. 이제 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게 되는 질문이 바로 우리의 실존에 관한 질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인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들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면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을 경험했는지 알 수 있다. 각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정리해 놓았다. 물론 각 사람이 처한 현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 중 한 예를 살펴 보기로 하자.

요한복음 5 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 다섯이 있는 곳에 누워있던 어떤 병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각종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병자는 38년째 병을 앓고 있었다. 그가 언제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는지는 모른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 은혜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가 병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이유는 은혜의 의미를 몰라서도 아니요 은혜를 받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무력했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다 한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물 속으로 뛰어 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무력감에 하루 하루를 보내던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는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으며 이제나 저제나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렸던 그에게 이게 웬 뜬금없는 질문인가 싶다.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바로 그 질문이다. 그의 실존에 관한 질문 말이다. 그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자인 자신은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다. 조건없이 주는 은혜 말이다. 그런데 그 은혜에 의존하기 위해서 선행

되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자각이다.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숨었다. 선악을 아는 기준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한다. 그 율법이 오자 아담은 죽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롬 7:9-10).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뱀의 말대로 눈은 밝아졌으나 그 밝아진 눈으로 자신의 수치와 실존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아담은 스스로를 정죄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임을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 신음하는 그 자체를 죽은 것으로 보신다.

부활하기 위해서 죽음은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그 말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신앙의 분기점이 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죽어야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다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자신의 애씀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죽은 존재인 아담에게 그의 실존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민하는 동안 자신의 실존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 깨달음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당신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게 부르시는 그분의 소리에 조용히 귀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벚음, 두려움, 그리고 숨음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8~10)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제가 당신의 소리를 동산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숨었습니다”(창 3:10)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은 이렇게 답했다. 아담이 말한 것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가 벗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몸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 아담의 진술을 토대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좀더 깊게 살펴보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리는 자신의 불의와 부정을 낱알이 까발기는 율법으로 들린다. 이는 선악 개념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리라는 것이 그렇다. 소리가 나면 그 소리는 인간에게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누군가가 “절대 꼬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가정하자. 그 소리를 당신이 들었다면 그 순간 당신 머릿속에는 꼬끼리가 떠오른다. 그것을 떨쳐버릴 도리가 없다. 그렇기에 언어는 그 자체로 인간을 구속한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에게 단단히 이른 말씀이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아담에게는 그 경고가 바로 율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오려면 먼저 반드시 그 내면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 내면에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율법을 들이대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인간들이 이미 내면에 선악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아담이 그랬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다고 한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워했다. 그 곁에 있는 ‘뽕중의 뽕요 살중의 살’이라 했던 그의 아내의 몸도 마찬가지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깨끗하고 더러움에 대한 기준이 마음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각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후에도 그것을 각자 자기 마음에 부합하는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인간들이 만들어 낸 도덕, 윤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뒤섞여서 혼용된 지는 이미 오래다. 사도 바울은 인간 내면에 있는 선악 판단 기준을 ‘양심’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그것이 행위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 2:13~15).

여기서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수네이데시스’(συνείδησις)다. ‘함께 판단한다’라는 의미다. 우리 말은 어질 양(良)과 마음 심(心)이 조합된 단어다. 우리말 양심이라는 단어는 이미 선을 함축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선을 추구해야 하고 또 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헬라어 ‘수네이데시스’는 중립적인 뜻을 가진 단어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기계적인 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 각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양심이라는 선악 판단 기준으로 늘 선을 택한다면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설령 어떤 이가 율법 모두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문자 그대로 다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판단하고 행하는 선이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것을 모두 지켜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들은 스스로를 포장하는 기술을 발달시켜 왔다. 각자가 생각하는 의로 자신을 포장한다. 선한 행위나 봉사와 헌신으로 자기를 포장한다. 어떤 이는 돈이나 명예로 포장하기도 한다. 다들 이렇게 포장된 모습 뒤에 자신의 본래 모습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간다. 교회에서 쓰는 가면과 집에 있을 때 쓰는 가면, 그리고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다. 도대체 가면 뒤에 숨은 자신의 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을 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따라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무엇으로 너를 가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

율법은 우리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 그 율법을 따르려 애쓰다 보면 결국 한계 상황에 다다른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율법적으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을까? 왜 그는 자신이 쌓은 그 모든 의, 업적, 명예, 칭찬들을 배설물로 생각했을까? 바로 그것들이 인간이 만든 선악 기준에 맞춘 의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지금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고 있다. 비록 초라한 무화구나 못으로 엮은 띠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그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은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는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내려 놓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상적이지도 신비한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실 한가운데서 나를 부르신다. 그때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있는가? 그 때문에 우리에게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나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다. 그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진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자신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나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누가 말했을까?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1)

(11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וַיֹּאמֶר)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말했느냐?(מִי הִגִּיד לְךָ כִּי עֲרֹם אָתָּ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וְהָמוֹן-הָעֵץ אֲשֶׁר צִוִּיתִיךָ לִבְלֹתָי אֶכְלֵה-מִמֶּנּוּ אֶכְלָ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고, 인간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 왔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에 의해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어느 한 편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응당 진노할 일이다. 아담은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 나무 사이로 숨었다. 그런데 그를 찾아 오신 하나님의 반응은 뜻밖이다. 마치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담담하고 차분하다. 폭풍같은 진노가 아니라 순풍같은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신다. 심문이 아니라 질문이다. 호통이 아니라 대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정적 감정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아담은 그저 여자가 따서 주는 것을 먹었고,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속임을 당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말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제게 그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에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경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가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런 그에게 두가지 질문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질문만 놓고 생각해 보자.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누가 아담에게 이야기해 주었는가? 여자도 아니고 뱀도 아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자 저절로 깨달아진 거다. 선악과를 먹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전부다.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보고, 아름다운 것을 감춰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말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한 대답은 동문서답에 가깝다. 어느 누구도 그가 벌거벗었음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알게 되었을 뿐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

렇다. 누가 굳이 뭐라 하지 않아도 마음 한 구석에 뼈뚫하게 자리잡고 있는 못된 의식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타인들보다 조금만 나아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열등감에 시달린다.

“빨리 발전하고 보다 완벽해지고 싶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열등감을 이겨내야 한다.”

하버드 교수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충고하는 말이란다. 인간들은 ‘발전’하지 못함을 열등으로 생각한다. ‘완벽’도 그렇다. 도대체 발전해서 완벽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발전이나 완벽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개인적인 평가에 의존한다. 교수들의 이야기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학생이 남들보다 덜 발전되었거나 남들보다 덜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은 옳지 않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주관적 판단만 있을 뿐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늘 비교하고 따진다. 내면에 뿌리깊게 내린 판단 기준이 절대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인간들이 하는 선악 판단에 하나님은 없다. 성경이 기준이 된다지만 그것도 인간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인간 사회의 선악 판단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외된다. 오직 기준은 바로 ‘나’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된다. 아담은 스스로를 정죄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무엇이든 필요하면 가려야 했고, 가리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싶으면 마지막엔 숨는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리고 그 후손들 모두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 네가 가진 그 선악 판단 기준은 결국 너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나아가 남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우리들의 모든 다툼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말이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게 만든 선악 판단 기준 때문이 아닐까?

신학자 윌리엄 셰드(William Shedd, 1820~1984)는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 내면에 자리잡은 죄성을 ‘자발적 경향’(Voluntary Inclination)이라 불렀다. 마치 지구가 23.5° 기울어진 것처럼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기울어졌다고 말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인간의 선악 판단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실 선악 판단을 인간이 하는 것, 그것이 죄다. 자신의 선악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죄다. 선악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인간은 그 혜택을 받을 뿐이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정죄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악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